

# 양돈계열화사업 추진과

## 양돈농가 선택의 기준

### 1. 계열화의 진전과 계열화를 보는 시각

**양**돈산업의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양돈산업의 계열화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기존 도축장 및 종축장 등 중소형 기업의 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현재 통합경영에 의한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열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농가의 입장에서보다는 계열화 주체의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계열화 농가의 입장에서 계열화를 보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 2. 농가의 계열화 참여방법에 대한 유형 구분

농가가 계열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먼저 계열의 주체가 될 것인가(인테그레이션) 아니면 계열화에 단순히 참여할 것인가(피인테그레이션)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가는 그 다음 단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본의 일정부분은 외부에서 조달하지만 자기가 주체가 되어 계열화를 추진하는 유형(제1유형)과 둘째, 거의 대부분을 자기자본에 의해 계열화를 추진하는 유형(제2유형)이다.

조직 대응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의한 계열화에 참여하는 유형(제3유형), 외부의 사적(私的) 자본이 주체가 된 계열화에 참여하는 유형(제4유형),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여 계열화를 추진하는 유형(제5유형)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자금력, 경쟁력, 시장력이 모두 뛰어난 농가라면 계열화하는 것보다 계열화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으며, 계열화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통합 주체로 나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여건이 대부분 양호한 농가는 계열화를 하더라도 조직 대응보다는 개별 대응이 발전가능성 면에서 유리하다. 조직 대응에 있어서 경영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농가는 협동조합을 통한 제3유형과 외부자본에 참여하는 제4유형이 비교적 유리하며, 이 중 생산기술이 비교적 낮은 농가는 협동조합을 통한 계열화 형태인 제3유형이 적합하다.

이 그 것이다. 이러한 구분방법은 현재 농가가 처한 기술과 경영수준이 다르고, 선택 결과에 따라 농가의 성장·발전과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는 유형화 방법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양돈부문에서 제1유형에 속하는 농가 또는 기업은 아직까지 흔치 않다. 제2유형에는 비교적 많은 사기업 주체들이 포함되며, 주로 이전에 종축업을 하던 농장들이 계열화 주체로 나선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중원종축, 춘강종축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유형에는 부산경남조합, 도드람양돈축협 등 조합형 계열화 주체들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이나 다비, 선전 등 잘 알려진 업체들은 제4유형에 속한다. 제5유형에는 1990년대 들어 형성된 영농조합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양돈부문에서는 개별대응 형태보다는 조직대응 형태에서 계열화의 진전도가 빠르다. 조합 참여형(제3유형)은 완전 통합에 가까울 만큼 진전되어 있

으며, 참여 농가수나 사육규모 면에서 절대적으로 크다. 양돈 계열화는 조합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제4유형, 제5유형의 순이다. 개별대응형태인 제2유형은 중돈장을 중심으로 계약 사육하는 2~3단계 정도의 진전에 머물고 있다.

### 3. 양돈농가의 계열화 참여 선택기준

계열화의 다섯 가지 유형 중 우리 나라 축산농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권장 가능한 유형은 어떤 것일까? 자금력, 경쟁력, 시장력이 모두 뛰어난 농가라면 계열화하는 것보다 계열화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으

며, 계열화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통합 주체로 나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여건이 대부분 양호한 농가는 계열화를 하더라도 조직 대응보다는 개별 대응이 발전가능성 면에서 유리하다. 조직 대응에 있어서 경영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농가는 협동조합을 통한 제3유형과 외부자본에 참여하는 제4유형이 비교적 유리하며, 이 중 생산기술이 비교적 낮은 농가는 협동조합을 통한 계열화 형태인 제3유형이 적합하다. 그리고, 자금능력은 떨어지지만, 생산 기술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지배력에 있어 비교 우위에 있는 농가는 먼저 동업종간 수평적 결합을 기초로 수직 계열화해 나가는 제5유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1〉 사육주체 능력별 권장유형

요인	비통합	개별대응		조직대응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자금력	****	***	****	**	*	**
경쟁력	****	****	****	*	**	***
시장력	****	***	****	**	*	***

주: \*\*\*\*는 요인능력이 상, \*\*\*는 중상, \*\*는 중하, \*는 하를 나타냄.

〈표2〉 통합유형별 기능 분담

요소와 기능		비통합	개 별 대 응		조 직 대 응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사육시설	토 지	○	◎	●	○	○	◎
	건 설	○	◎	●	○	○	◎
	물 비	○	◎	●	○	○	◎
생산자재	자 돈	○	●	●	●	●	●
	사 약	○	●	●	●	●	●
	깎 품	○	●	●	●	●	●
	연 쟁	○	●	●	●	●	●
	전 료	○	●	●	○	○	●
	수 기 도	○	●	●	○	○	●
자 본		○	●	●	◎	●	●
노 동		○	◎	◎	○	○	○
사육관리	사양관리	○	◎	◎	○	○	○
	사육지도	○	●	●	●	●	●
출 하		○	●	●	×	×	×
도축처분	도 축	×	●	●	●	●	◎
	도체분할	×	●	●	●	●	◎
	가 공	×	●	●	●	●	◎
돈육판매		×	●	●	●	●	●
경영관리	의사결정	○	●	●	●	●	●
	가격보장	○	●	●	●	●	●
	위험부담	○	●	●	●	●	●
손익귀속		○	●	●	○	●	◎
계약형태		-	개별계산 이자분배	개별계산 이자지출	정액보장 사료효율 능력비례 고정보수	정액보장 사료효율 능력비례	-

주: ○는 사육주체 부담, ◎는 사육주체 또는 통합주체 부담, ●는 통합주체 부담, ×는 부담 불요

유형별로 볼 때,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가 담당하는 기능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개별 대응하는 제1유형의 경우와 제2유형의 경우의 차이는 생산자재 및 자본 조달과 경영관리 등 중요한 기능을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수행하느냐에 있다. 조직

대응의 형태인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 통합주체가 생산자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사육지도, 도축·가공, 판매, 의사결정, 위험부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육주체는 토지, 건물, 노동력 등을 제공한다. 제5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신조직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경영 제여건이 좋고 나쁨을 일률

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단, 현상적으로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육주체이자 계열주체인 농가들의 수평적 조직에 의해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 4. 맺음말

계열화의 성패는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생산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현실적으로 계열주체가 소비자와 계열농가를 만족시키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농가는 생산 및 가격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려 하며,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계열주체, 계열농가, 소비자 간에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계열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가격불안정에 따른 계약 불이행이다. 축산농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득이 안정되지 못하면 계열화는 성공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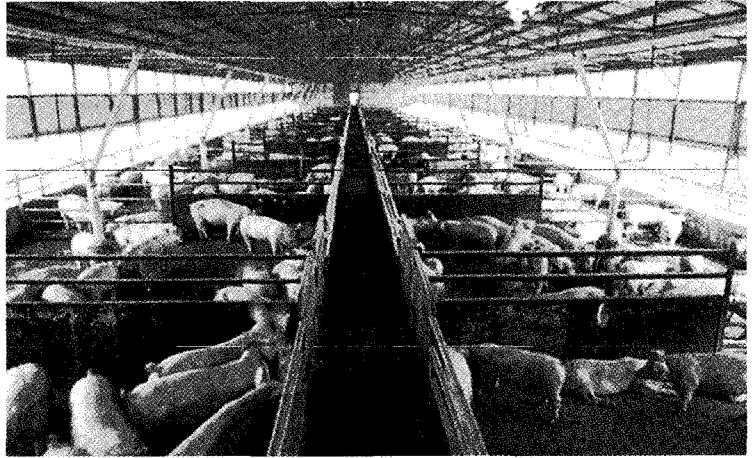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열농가가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여기에 대

특  
집

한 계열주체의 이해부족으로 상호불신과 계약파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농가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계열주체와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

생산과 관련하여 가축질병에 의한 가축폐사,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 등 다양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부분도 많지만, 계열주체나 농가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 또한 중요하다.

먼저, 농가는 자신의 기술수준이나 자금력, 경영능력, 시장대응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열화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누구와 결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



▲농가는 자신의 기술수준이나 자금력, 경영능력, 시장대응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열화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대상자인 계열주체의 경영상태나 자금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

의 경영목표를 단기적인 이윤극대화에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안정에 두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열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돈**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나라  
농축산인의 천국

➔ 뉴질랜드 에서  
농장을 하시겠습니까?

www.farminvest.co.nz